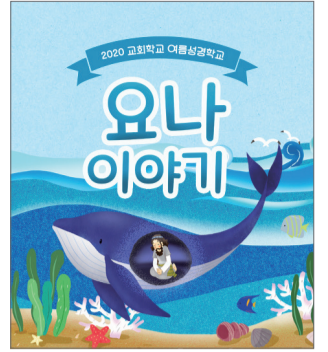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요나 이야기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다!

광림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정규예배 시간에 말씀훈련,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광림교회 미래 꿈나무들의 여름교육 프로그램이 한 달 동안 각 부서별로 정규예배 시간에 진행되고 있다. 요나서 1장 17절~2장 1절 말씀을 바탕으로 '변화의 주인공'을 주제로 한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스스로 멀리 도망쳤다가 기도를 통해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예년과 달리 올해는 여름행사 장소를 교회로 정했다. 매년 비전랜드의 넓은 자연에서 공부로 지친 몸을 쉬고 친구들과 물놀이도 즐기며 여름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허락지 않아 아이들은 아쉬워한다. 대신 정규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린 후 분반활동을 여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진행한

다. 교사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아이들의 안전에 힘쓰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철저히 한 후 활동하고 있다.

광림 교회학교는 여름성경학교를 일 년 농사와 같이 잘 준비하여 해마다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 결실을 맺고 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땀과 헌신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특별한 말씀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찬양과 기도로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한 뼘 더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교회에서 가장 어린 연령인 영아부는 7월 12일(주일), 유아, 유치부는 7월 19,26일(주일)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과 물고기, 바다모양의 장식들로 꾸며놓은 예배실에서 선생님들과 기쁨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작은 몸짓의 찬양과 율동, 미로를 통과해 '순종의 길'을 찾아가는 코스게임 등으로 믿음의 추억을 쌓았다.

초등학생들이인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영아예배부는 각 부서별로 7월 12일부터 3~4주에 걸쳐 주일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 게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변화의 집 만들기, 조별로 단합하는 빙고게임, 말씀과 가까워지는 인형극, 물고기 뱃속 탈출 게임, 볼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어와나와 중·고등부는 7월 26일(주일)부터 2~3주 동안 정규예배 시간에 여름교육일정을 진행한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라는 아이들
 유선례 장로(유년교육위원장)는 "기도하는 부모들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있어 광림 교회학교의 미래가 밝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가정과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통한 견인차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이 심겨질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호영 목사(교육국)는 "2020년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 여름방학 동안 말씀훈련의 장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로 비록 정규예배 안에 녹아 들어간 교육 일정으로 축소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이란 놀라운 역사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는다"고 전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본문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거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갖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이라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강요되던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인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문란하고 물질적인 이방종교의 풍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에베소인들은 아데미(아르테미스)를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모시면서 신전에서 풍요와 번영을 비는 음란한 제사를 드렸고, 각종 거래를 행했습니다. 도시생활은 철저하게 아데미와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축제날에는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동물의 밥이 되게 하여 축제의 시작을 알릴 정도로 심한 핍박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붙잡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오른손으로 붙잡고 거닌다”(1절)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붙잡고 거닌다’는 말에는 ‘지속성’이 담겨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 요소들로 인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도전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붙잡고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서 주님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원어적으로 볼 때 ‘육체적인 피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라는 것도 단순히 참고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디어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이에 굴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과의 투쟁에서도 진리를 지켜내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

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이러한 교회를 향해 주님은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가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수고와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길 믿습니다.

둘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5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았

고, 거짓 사도들에 맞서 진리와 교회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정관사를 붙여 ‘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그 때, 주님을 진실 되게 사랑했던 그 시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결핍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함으로써 넘치게 되었던 감사의 찬송과 고백이 사라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 되고, 습관 혹은 고착화가 되어 버려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교회를 위하여 투쟁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이러한 행위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것은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만 모든 행동들에 진정한 의미

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그 사랑의 때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점검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혹시나 잃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사랑’을 유지함으로 생명의 활기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며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원어적으로 볼 때, ‘계속·반복’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계속 반복하여 숙고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즉,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만에 딱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서지 말라”(No turning back)는 것입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생각과 회개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돌이키지 않는 자와 돌이키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5, 7절). 만약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붙잡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기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7절)를 허락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붙들고 함께 하시는 은혜,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말씀을 따라 회개의 열매를 맺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함으로 끝까지 이기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성도들이 쓴 성경 하나님께 바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성경필사 7월 12일, 주일 저녁예배 때 봉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성경필사> 봉헌식이 7월 12일 주일 저녁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날 저녁예배 말씀이 끝난 뒤 선교구와 지교회에서 각 1명씩 나와 성도들이 직접 필사한 성경책 제본을 성전 앞에 마련된 봉헌테이블에 올려 놓았다. 권순정 목사는 “이번 전교인 성경필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침체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4월 진행하였다. 총 1,553명이 참여하였으며, 성경 전체를 4권(구약3, 신약1)으로 나누어 1세트를 구성하였고, 11개 선교구와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서 각 4권씩 총 56권의 필사성경을 만들어 호렙산 기도회가 끝나는 시점에 봉헌식을 갖게 되었다”고 경과보고

를 했다. 봉헌기도를 드리면서 김성석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두워진 세상이 밝아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기도했던 모든 바라는 것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때 보다 힘든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필사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기 위해 시작하였는데 1,600명에 이르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경을 차례로 써 내려간 것에 감



사를 느낀다. 이 필사본은 광림역사관에 보존되어 먼 후일에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이 많은 그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경필사를 한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집중하면서 쓰는 가운데 은혜가 되었던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필사성경은 7월 12일 봉헌식이 끝나고 19일까지 본당 로비에 비치하였으며, 지금은 사회봉사관 5층에 있는 광림역사관(헤리티지&비전 홀)에 전시되어 누구든 자유롭게 이곳에서 필사성경을 볼 수 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포토 뉴스



전교인 성경필사 봉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성경필사본 봉헌과 필사자 명단이 본당 로비에 전시되었다.



청년부 교육선교 증보기도회
청년부 교육선교를 위해 7월 16일(목)부터 30일(목)까지 3회에 걸쳐 증보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각 부서 정규예배 가운데 말씀 훈련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장년부 아가세 가정예배
청장년부는 유튜브를 통해 가정예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 7/12 전교인성경필사 봉헌식
- 7/19 주일예배
- 7/22 수요치유의신학
- 7/24 상반기목회세미나
- 7/26 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스데반선교회 활성화 위해 개체 선교회장 모여

서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사회 안팎의 침체된 분위기를 이겨내고, 30, 40대 젊은 가정의 주축인 광림교회 스테반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7월 4일(토) 오전 6시, 사회봉사관 4층에서 남선교회 스테반센터 주관으로 34개체 선교회장 연합모임을 가졌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개체선교회장과 멘토위원, 남선교회 본부임원, 스테반센터 위원 등 약 60명이 참석해 1부 예배, 2부 회의, 3부 애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선교회장들을 위한 증보기도 시간을 가졌고, 특히 김홍준 어린이(12-2스테

반 김태중 집사)의 골육종 치유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정용식 목사님은 ‘싸움에 나갈만한 자’(민 13-19)라는 제목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회의시간에는 스테반회장으로 선교회 개척과 운영 및 회비납부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설문을 통해 선교회 모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함께 증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데반선교회 부흥을 위한 방안 모색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장)는 스테반선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을 모으고 연합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스테반 모임 일정을 스테반센터에 공유하면 교회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34개체선교회 활성화를 위해 증보하며 수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많은 가정이 참석하는 모임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적인 봉사활동(보육원방문)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하자는 의견과, 스테반 연령의 슬로회원을 위한 신규 선교회를 구성하고, 선교회장의 영성훈련(말씀, 기도) 프로그램을 위해 교역자를 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스테반센터 운영위원을 총 15명으로 기획부, 홍보부, 신앙부로 구성하였고 이중 8명이 청장년부 회장단으로 서로 연계하여 젊은 가정의 부흥을 위해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저녁예배(찬양의 밤)에 선교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토요일 새벽기도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바쁘게 살고 있는 광림의 30, 40대 믿음의 가장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을 바라보며 서로 증보하고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기도로 증보해주신 박기연 장로님과 총무님, 본부임원진, 각 교구 멘토님과 스테반센터 위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애찬으로 새벽부터 수고해주신 구현정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심승욱 집사(스테반선교회)

내 인생의 말씀

깨어 있어 새벽에 기도하라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하고 전형적인 새벽형 인간이다. 새벽 3시 전후로 일어나 해야 할 일을 메모하고 뒤늦게 도착하는 2~3가지 조간신문을 섭렵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1993년 광림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출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1년 뒤부터 매일 새벽에 신약말씀을 1~2장씩 읽은 뒤에 중언부언의 기도와 찬송가를 불렀다. 찬송가도 잘 몰라 읊조리는 수준이었지만 나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 7개월이면 신약 1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듯이 의미도 모른 채 성경을 계속 반복하여 읽어 내려갔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새벽예배를 향한 마음이 움직였고 암사동에서 본당으로 1부 예배에 가끔 참석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늘 들려오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라는 말도 어색해서 할 수가 없던 나였지만 기도도 간절함을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애썼다. 새벽예배를 갔다 오면 거짓말처럼 영적이었다던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문제가 미처 풀리지 않는 과정 중에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알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새벽에 기도하는 나를 만나주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비파야, 수금아, 깎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편 57:8)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출 14:24) 모세의 절박함에 흥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이 일어난 그 새벽의 간절함은 나에게도 하나님을 연결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더욱 귀하고 귀하다.

하루를 그리고 주말에도 25시간을 사는 나의 생활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 직진만 하였고, 5년 전부터 서서히 감속을 하게 되면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믿음의 바다에 나갈 준비가 안 된 나에게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헌신의 기회가 주어져 그 또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아직도 찬양과 기도 모든 것이 어설프지만 새벽에 일어나 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기쁨으로 미숙한 교인의 5년차 슬기로운 믿음생활을 하려고 한다.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호흡이 있는 그 날까지 깨어있는 자가 되길 기도한다.



남궁규 집사(남선교회총연합회 서기)

남태평양 지역의 선교지로 쓰임받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뉴질랜드 광림교회>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1995년 감독님의 선교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어,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지난 25년의 역사 속에서 뉴질랜드 교민사회의 영적인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피지에 세 곳의 교회를 봉헌하는 등, 남태평양 선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고, 광림의 권속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뉴질랜드 광림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지난 3월 말 뉴질랜드 전체가 이동제한령이 내려지

게 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웃집에 방문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강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주일예배와 새벽예배, 주중예배를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매일 제단의 불을 지켰고, 교회학교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며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기에 힘쓰며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동제한령이 해제됨에 따라 9주 만에 교우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현재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였지만, 간간히 해외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던 교우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뉴질랜드 광림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담임목사님과 감독님, 본당에 계신 교우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뉴질랜드는 물론 피지와 바누아트,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지역의 선교의 사명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과 광림교회 본당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광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남태평양 지역의 선교지로서 쓰임 받기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명환 선교사(뉴질랜드 광림교회)

차세대 믿음의 리더들을 지원하는 <광림장학금>

2020년 2학기 광림장학생 선발



2020년 2학기 광림장학생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26일(주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아 8월 첫째 주일에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광림장학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장로)는 1998년부터 매년 2회 학기별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봉사하며 주어진 학업에도 열심인 신실한 믿음의 대학생들을 선발해 광림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생의 종류는 세 가지로 성적우수장학생, 봉사우수장학생, 감리교 미자립 목회자녀 장학생이다. 지원자격으로는, 성적우수장학생은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대학생 중에서 1학년 1학기 이상을 마친 학생으로 지난 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인 학생이며, 봉사우수장학생은 광림교회 각 부서의 봉사자들 중 충성되게 헌신하는 학생이다. 여기에는 교육국 4명, 청년선교국 4명, 사랑부 2명, 교육

국신학생 2명, 남교회의 교육국신학생 1명, 청년선교국 1명이 선정되며, 앞으로 서교회와 북교회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선발할 예정이다. 광림교회는 20년 동안 2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2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매년 1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생들의 학업과 비전을 격려하고 있다.

광림장학금은 광림의 성도들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매월 <1만원 장학후원금>과 각 교구 장학위원들이 매월 5만원씩 후원하는 <교구 장학후원금>으로 장학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장학생들의 미래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큰 가치를 담고 있다. 여기에 장학위원회는 <개인명의 기념장학금>, <기업후원 장학금>제도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10년전 김덕실 권사 소천후 장례부의 금 2,5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며 조성된 <김덕실기념장학금>을 비롯해 <오옥자기념

장학금>이 있고 <자녀이름 기념장학금>으로 사랑부 <이주형기념장학금>과 <김선욱 기념장학금>이 있다. 또한 기업을 하는 성도가 가정에서 한 학기에 한 학생 이상의 장학금을 헌금하는 <기업후원 장학금>도 있다. 작년과 올해 1학기에 광림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려대학교 의대 본과 4학년 김태산 대학생(사랑부 장년1팀 교사)은 “광림장학생에 선발된 것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광림장학금을 만들어주신 김정석 담임목사님, 사랑부 <이주형기념장학금>을 기탁해주신 이상훈 권사님, 그리고 광림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헌금해주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림교회 사랑부를 통해 의사의 꿈을 키웠고 노력할 수 있었는데, 사랑부를 통해 장학금을 받게 되니 더욱 감사합니다. 내년 초 국가고시를 치르게 되면 의사가 되어 광림교회를 통해 의료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고, 미래에는 광림장학금을 기탁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광림장학금의 수혜를 받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장학위원회에서는 <1만원 장학후원>과 <기업 장학후원>에 대한 기업체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후원을 통해 더욱 많은 인재들이 차세대 믿음의 리더로 육성되는데 더 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변영혜 기자 yhyun1010@hanmail.net

교회학교 텃밭 가꾸며 생명의 소중함 깨달아

광림남교회



지난 5월에 교우들과 함께 교회학교 텃밭 조성을 위한 회의를 통하여 마음을 나누고, 6월에는 김성호 청년부장님과 청년부원들, 박진서 권사님과 남선교회 그리고 교역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별로 밭이랑을 하나씩 배분하여서, 지난 7월 5일 교회학교 예배 후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작물을 심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아·유치부는 대과와 깻잎, 유년부는 적상추, 초등부는 옥수수, 중·고등부는 꽃상추

를, 그리고 공동으로 재배하는 이랑에는 고추와 호박을 심었습니다. 주변에 토끼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로부터 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도 설치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직접 장갑을 끼고 모종삽으로 흙을 파서 작물을 심고 물도 주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모처럼 야외활동을 통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자연학습을 통하여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작물을 심은 이후에도 학생들로부터 직접 심은 작물들과 텃밭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추는 벌써 열매가 열렸고, 상추나 다른 작물들도 곧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심은 작물들을 수확한 이후에는 감자나, 고구마, 토마토 등 시기에 맞게 다양한 작물들 또한 재배할 예정입니다. 교우들께서 주변의 땅을 좀 더 개량해서, 텃밭의 규모를 더 넓히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남교회 교회학교 텃밭 조성을 통하여 교회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애정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며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교회의 텃밭을 통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 나가고 또한, 교회를 더욱 친근히 여기고 자주 와서 머물며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학생들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유준 전도사(광림남교회)

신앙 간증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4교구 속장을 맡고 있는 장찬희입니다.

저는 전 속장님들께 받은 과분한 사랑과 기도를 흘려보내고자 작년에 예비 속장 교육을 이수하여 올해에 속장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속원들을 섬기고 기도로 중보하는 속장이 되자는 각오로 호기롭게 시작하였지만 모든 일들이 생각처럼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는 업무에 적응하기 바빴으며 회사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하여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가 생겨 처음 다짐했던 속장으로로서의 각오들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속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단체 특방에 목상을 올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제 안에 기쁨은 점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좋은 속장이 되기 위한 의무적인 숙제가 되어 열정은 점점 식어만 가고 있었고,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만나러 가던 교회는 사람들을 만나는 속장모임, 교구모임, 지구모임, 속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무렵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모임이 자제되면서 마음 한편 깊숙한 곳에는 조용히 예배만 드릴 수 있겠다는 안도가 자리 잡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대화하며 광림교회 청년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 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찾자 노력하였습니다. 조금씩 모임을 가지기 시작한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답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을 믿고, 저의 개인 영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영성도 만들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볼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광림교회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맡겨주신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는 주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을 겸비하여 속장으로 있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광림교회 청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찬희 속장 (청년부)

사랑과 복음을 마스크에 담다

광림서교회



지난 6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호렙산 기도회의 여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의 설교 후에 진행된 중보 기도제목의 나눔 시간은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영적인 울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 기간, 서교회의 성도들은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와 같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와 함께 '선교지를 위한 마스크 나눔'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작은 헌신을 진행했습니다.

선교지에 보낼 2,000장의 마스크 모아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선교지에 전해질 마스크를 손에 들고 힘찬 걸음으로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가

족과 함께 오르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교회학교 친구들의 헌신도 더해져 40일간 약 2,000장의 마스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기부와 함께 선교사님들께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꾸민 피켓을 들고 응원의 사 진도 찍으며 선교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회학교 이다인 어린이는 "마스크 나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장난감들을 팔아서 마스크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마스크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개인 사업장(영중도, 미루 안경원)을 운영하며 행사에 참여한 정경의 성도는 "평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들과 나눔의 취지를 공유하여 마스크를 풍성히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용기가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쓰임

받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남선 권사는 "저도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지만 선교지에서 쓰임 받는다고 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더 나누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가 빨리 회복되어서 마음껏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로렌스 수사의 말처럼 우리에게 작은 마스크 한 장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김혜경 기자 kyung5374@hanmail.net

코로나? 그러나!

- 목회현장 -



김기운 목사 (11선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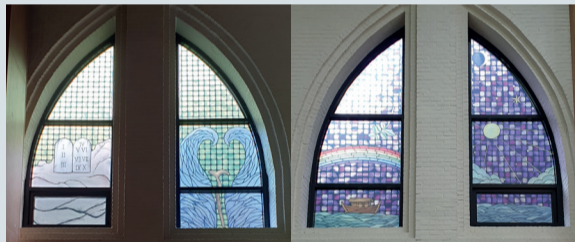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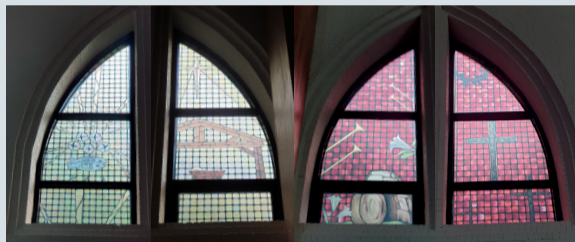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가족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살롬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한 강건하신지요? 정부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한지도 이제 반년이 되어갑니다. 아직도 4월을 기억합니다. 우리 광림의 제단도 예배를 잠시 온라인으로 바꾸었을 정도로, 처음 바이러스의 기세와 파괴력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자유하지는 않지요.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먼저 챙기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한시적일 줄 알았던 이 변화는 또 하나의 일상의 되었습니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 교회 역사도 코로나의 여파를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11선교구 역시 많은 곳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확진자의 동선이 우리 가족들과 가까워 질 때면, 마음을 졸여야 할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도 하나님을 향한 교우들의 사모함과 열정을 꺾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심방이 잡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문을 열고 맞이하는 가정마다 이미 두려움은 은혜 뒤로 물러섬을 느꼈습니다. 한번도 빼놓지 않으셨다며 모아놓으신 헌금을 떨리는 손으로 전달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당연하게 성전을 채우는 많은 교우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 코로나보다 강한 믿음을 봅니다.

모양이 완관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코로나. 그 이름처럼 세상에는 적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모시는 광림인들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함을 봅니다. 코로나, 여전히 그 기세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코로나 넘지 못할 산같이 거대하지만 그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그러나 광림의 제단이 있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평화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제단을 함께 지키는 모든 교우들을 마음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장 38~39절)



광림수도원을 가다 - ①

광림수도원은 한국교회 역사에 수도원 영성을 소개한 최초의 공간으로 깊은 역사성을 담고 있다. 광림수도원은 기도공원, 에베소광장, 다락방채플 등 곳곳에 특색있는 공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새 단장된 광림수도원은 한국교회에 다양한 쓰임을 받고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영감을, 성도들에게는 기도, 쉼을 통해 영적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광림수도원의 이모저모를 세 번에 걸쳐 소개한다.

첫 번째로 대성전의 층별 예배실과 부속실에 대해 알아본다. 대성전은 봉헌당시의 강단의 돌 장식과 벽면 벽돌을 그대로 살려 수도원의 역사를 보존했다. 대성전 강단 십자가와 촛대, 성구는

본당과 같은 디자인, 크기로 제작되어 연결성을 부각시켜 광림의 전통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대성전 스테인드글라스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주요 스토리가 아이콘으로 새겨져 있다. 양쪽 대형 창에는 십자가와 교회 로고에 있는 세 개의 물결(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의 3대 사역을 의미)이 있으며, 3층 발코니석 위로는 성령을 의미하는 아이콘(바람, 물, 기름, 불)이 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

백명순 기자 bmssoon@naver.com

파이온드리 채플

런던에서 시작된 감리교 예배당을 기념하며 소박한 철재 십자가와 뉴롬의 백색 강대상을 모티브로 꾸며졌다.



중예배실

중예배실은 아크릴과 원목을 사용한 현대적인 성구로 배치 하였으며, 450여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베다니 채플

베다니 채플은 150여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플로 유럽 수도원들의 성구를 본따 설치하였다.



성찬실

지하 1층에 위치한 성찬실은 라운드형의 성찬 트레이일과 의자, 특색 있는 성구와 곡선의 벽면으로 되어있다.



벤델 성전

접이식 의자와 온돌로 100여명이 숙박 가능하며 모니터를 설치해 대성전 예배 실황을 시청 가능케했다.



소예배실

광림교회 문장의 강대상이 있는 4곳의 소예배실 중 한 곳으로 30~50명의 숙박이 가능한 예배실이다.



KWANGLIM Prayer MOUNTAIN

부활의 교회 스테인드글라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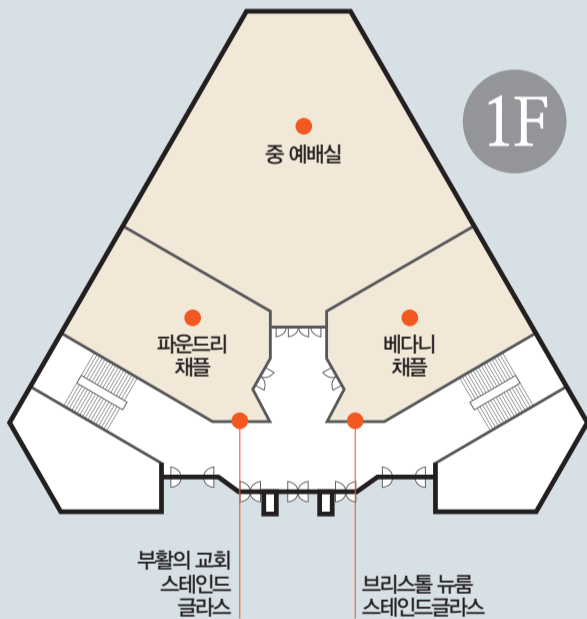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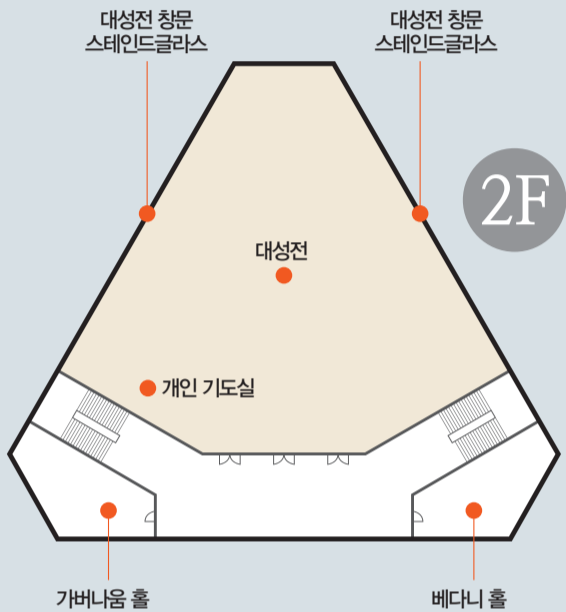


광림수도원 본당 1층 로비에 들어서면 두 점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만나게 된다. 왼쪽 벽면에는 2017년 미국 최대 감리교회인 부활의 교회 본당에 설치된 “부활의 창” 축소본이다. 실제 이 스테인드글라스는 세계 최대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 인물, 기독교 역사의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으며, 봉헌 당시 생존인물로는 빌리 그래함 목사님과 김선도 감독님이 새겨져있다.

브리스톨 뉴룸 스테인드글라스 ▼



이 작품은 세계 감리교회 건물 중 최초의 건물인 영국 브리스톨 뉴룸(The New Room)에 2019년 봉헌된 작품이다.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 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뉴룸 새단장을 기념한 작품이다. 수도원 봉헌을 기념하며 같은 크기로 전시할 수 있도록 뉴룸으로부터 디자인을 기증받았다.



개인 기도실

대성전을 나와 3층으로 오르는 계단 실에는 수도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남, 여 개인 기도실 80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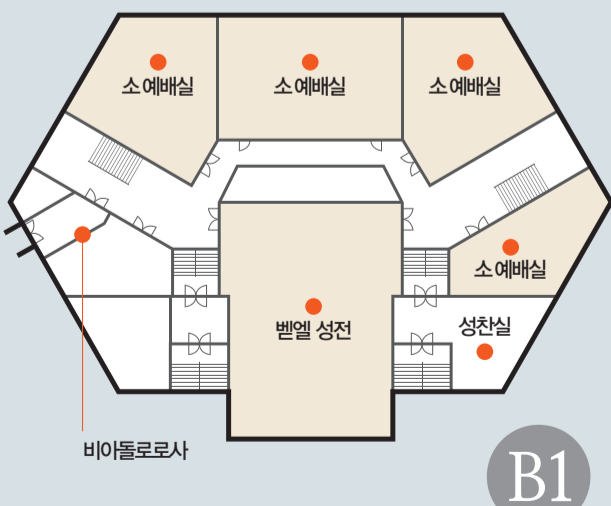
베다니 홀

베다니 홀은 목회자 대기실과 스텝진들을 위해 주방과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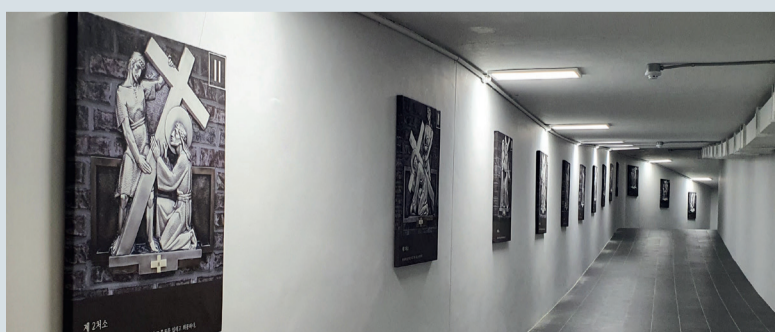
가버나움 홀

대성전 왼쪽에 있는 가버나움 홀은 많은 도서와 회의테이블이 비치되어 있다.



비아돌로사

대성전이 있는 본당 지하에서 살롬 하우스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는 비아 돌로사(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를 상징하는 14처소 아이콘 액자가 게시되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성화

수도원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등의 성화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제32회 호렙산 기도회

은혜의 자리 주인공이 되는 길

32회 호렙산기도회에, 새벽 3시 30분 알람 소리에 일어나 성전에 올라 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호렙산에 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믿음을 더하시며 1년 여 동안 기다려온 호렙산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재건축된 새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기대와 꿈을 갖고 기다렸는데,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이 나가질 않아 고생을 하였습니다. 6월 중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계

약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무척 걱정을 하던 중에, 6월 1일부터 호렙산에서 간절히 기도 드렸는데 첫주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올려 드리는 새로운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장막에서, 막내아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이 되며,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게, 믿음의 여정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

립니다. 코로나19로 시대에 호렙산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의 마음과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이 시기에 호렙산 기도회를 드리는 결단으로, 기도의 기회를 허락하신 사랑하시는 담임목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려 드립니다!



강영희 성도 (28교구)

호렙산 기도회

새벽을 깨워 달려온
호렙산 기슭
부끄러운 영혼의 짐 풀어놓고
주님께 가만히 아뢰인다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숲속에 성령의 불꽃은 타오르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이여
신을 벗으라
벗어 버리라 고뇌의 신을
벗지 못해 끌어안고 온 무거운 짐
벗어 버리라

그 말씀 힘입어
고난도 욕망도 이쁨도
활활 타오르는 불속에 던져버리면
후련하고 가벼운 등은 날개가 돌아 난다

사방에서는
소나기처럼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환호성
끓은 무릎 위로
저 마다의 그릇에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위담는 소리 넘친다

은혜로워라
비밀한 광경이여
알 수 없으라
신비로운 은총의 세계

주님 베풀어주신
사십일의 축복의 시간
기쁨과 감사의 잔치로 이어지는
감격의 순간들이여

주님의 응답하심과 외할머니의 세례

외할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25살인 제가 중학생 때부터 바라고, 최근 들어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드리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15년 가까이 파킨슨병을 앓아 오신 외할머니께서는 몇 달 전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여러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병원인 세브란스에 입원을 허락해주심으로 써 응답하셨고, 외할머니가 힘든 치료 과정을 마치고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두 달 동안 외할머니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외할머니를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꽤 오랜 시

간 동안 절에 다니셨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말로 외할머니를 앓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고 어머니와 함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저희의 기도에 응답 해주셨습니다. 세례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외할머니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반대 없이 세례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늘 곁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던 외할아버지께서도 외할머니의 세례에 흔쾌히 찬성하셨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휠체어 없이 이동이 힘든 외할머니를 위해, 목사님께서 외할머니택으로 직접 오셔서 전도사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속회 권사님과 집사님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문답식으로 세례 서약을 진행하실 때, 평소 말 한마디 때는 것

도 어려워하시던 외할머니께서 또렷하게 “아멘” 이라고 대답하셔서 놀라움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먼 길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외할머니와 함께 신앙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기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하겠지요. 이번에 외할머니께서 병상세례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저희 가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영 성도 (3교구)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힘

저는 광림교회 8선교구 장지원 청년입니다. 부족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간증문을 올리게 된 것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32회 호렙산 기도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매우 컸으나 감감한 새벽에 저 혼자 교회로 나가기가 사실 무섭고 두려워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함께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호렙산에 관심이 있냐고 물어왔고 저는 이번이 기회인가 같이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감감한 새벽을 무서워하는 저에게 빛을 밝히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저의 집에 매일 데리러 와줬습니다. 호렙산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확실하게 마음을 못 열었던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저를 붙여 주신 거 같았고,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친구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23살에 처음으로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개인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빠른 속도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선택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아픈 곳이 치유되며 아빠의 회사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느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 밖에 제가 한 것은 없었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을 때 매일 새벽을 깨워주신 건 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주님, 제가 몸이 피곤할지 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자고 있는 저를 꼭 깨워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드리면서 받은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모든 걸 다 쏟아 붓고 기도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드릴 때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 58:9) 아멘.



장지원 성도 (23교구)



성용애 권사 (27교구)

